

# '위대한 책의 시대 창출' 선언

## 출판문화산업단지 건설조합 발기인대회서 '선언문' 채택

### 위원장에 李起雄씨...실행위원 21인 선출

그동안 각계의 비상한 관심 속에 추진되어 온 '출판문화산업단지' 건설조합 발기인대회가 9월5일 열림으로써, 출판타운 건설계획이 본격적인 궤도에 진입했다.

이날 오전 10시 출판문화회관에서 열린 발기인대회에는 정진숙(을유문화사)·한만년(일조각)·권병일(지학사, 출협회장)씨를 비롯한 112명의 발기인이 참여, 별항과 같은 발기선언문을 채택했다.

대회는 이어, 그동안 건설준비추진위원장을 맡아온 李起雄씨(열화당 대표)를 건설조합창립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權炳壹·金京熙·金炳翼·金彦鎬·金炫植·朴孟浩·裴孝善·尹錫金·尹青光·尹炯斗·許昌成씨 등 실행위원 21인과 田炳皙·趙相浩씨 등 감사 2인을 뽑았다.

오는 95년까지 경기도 一山에 약15만평 규모로 조성될 출판타운은 출판업을 증추생산 기능으로 하고, 유통관리기능과 함께 교육시설·박물관·의료시설·사원주택 등 복지기능을 고루 갖추게 된다.

발기선언문全文 발기인 명단은 다음과 같다.

### 발기선언문

출판은 나라와 사회의 총체적 발전을 담보하는 창조의 원동력이다. 우리는 오늘 이 나라 이 사회의 총체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출판문화의 위대한 가능성을 확인하면서, 한국출판문화산업단지의 건설을 시작한다.

다사다난하고 고난에 찬 20세기를 마감하고

우리 민족사회에 무한히 새롭고 희망찬 시대가 될 21세기를 향하고 있는 이 전환기에, 보다 소망스런 출판문화의 창출작업을 위해 우리 출판문화산업인은 우리의 소명의식을 여기 다시 다짐한다. 우리는 지식과 정보의 시대에, 찬란한 민족문화의 전통을 우리의 긍지로 삼으면서, 우리의 모든 지혜와 역량을 총동원하여 한국출판문화산업단지의 건설을 발기하는 것이다. 모든 문화와 예술, 학문과 사상 창조의 원천이자 그것의 궁극적 성과로서 나라와 사회를 발전시키는 구체적 전략이자 힘이며, 모든 인류의 보다 복된 삶을 평화적으로 보장하는 출판문화가 이제 우리 시대의 중심주제가 되어야 하고, 우리가 건설하는 출판문화산업단지는 21세기 우리 국가사회 발전의 실질적 상징으로 자리잡아야 한다.

우리는 지금 민주화된 복지사회를 지향해 전진하고 있다.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화된 복지사회는 문화를 나라와 사회의 토대로서 중시하고 그것은 바로 책의 문화, 책의 힘을 의미한다. 21세기를 우리 민족사회의 위대한 시대로 창조해내기 위해서, 우리는 문화창출의 기본구조를 이루는 출판을 우리 세대의 중심주제로 삼아야 한다. 우리는 조상들이 물려준 소중한 문화적 전통을 오늘에 되살리고 이 과학과 산업의 시대를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우리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식과 정보산업의 핵심매체로서 출판문화산업을 국가사회적 차원에서 당연히 보호하고 육성해야 한다. 날로 진전되고 있는 산업화시대에 출판문화산업은 이제 발전하는 국가사회의 보편적 필수조건으로서 우리 앞에 제시되고 있다.



9월5일 출판문화산업단지 건설조합 발기인대회가 열림으로써, 출판계가 아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출판타운 건설계획이 본격적인 궤도에 진입했다.

### "시대적 요구에 대한 주제적 대응"

한국출판문화산업단지 건설작업은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고 있는 이 민족사회의 역사적·시대적 요구에 대한 우리 출판문화산업인의 주제적 대응이다. 출판문화산업의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가 힘모아 건설하는 한국출판문화산업단지는 다음과 같은 국가적·사회적 역할을 해낼 것이다.

첫째, 우리 출판문화산업 창출의 획기적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현대화·과학화가 급속도로 추진될 것이다. 우리 사회의 산업화에 따른 지식 및 정보에 대한 요구는 날이 갈수록 폭발적으로 증대할 것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출판문화 창출의 현대화·과학화는 당연하고도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출판문화산업의 현대화·과학화는 출판문화 창출 및 생산의 근근대적인 관행을 혁신적으로 개선하는 일일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다른 문화적·산업적 생산 및 창출작업을 양적으로 증대시키고 질적으로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

다. 출판문화산업의 현대화·과학화는 출판문화산업단지에서의 집중화된 연구와 공동노력으로 용이하게 추진될 수 있다. 출판문화산업단지는 우리 사회에 잠재되어 있는 모든 출판문화 창출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

### "우리 사회의 총체적 발전 위한 동력"

둘째, 우리가 건설하는 한국출판문화산업단지는 출판계의 숙원인 출판물 유통질서의 현대화를 당연히 제고시킬 것이다. 우리 출판계의 오랜 과제인 출판물 유통의 현대화는 유력한 출판사가 대거 참여하는 출판문화산업단지에서 자연스럽게 추진될 수 있고 이는 날로 증대되는 출판문화에 대한 요구에 대응하는 것이다. 출판물 유통의 현대화를 통해 우리는 독자층의 대량적 증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곧 우리 사회의 총체적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동력이 될 것이다.

셋째, 우리가 건설하는 한국출판문화산업단

1개월만에 재판단행

### 컬러에화집

## 돈이 보낸 편지

대한출판문화협회로부터 청소년 모범 도서로 선정된 양서

이의용 지음  
眞實은  
단 한 마디의 말로도 전달될 수 있다.  
3분이면 읽을 수 있는 짙막한 에화들.  
예쁘고 재치있는 컬러삽화.  
짧고 쉽고 맑고 깊은 메시지 72편.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해주는 현대판 명심보감.  
독자대상 : 7세 ~ 77세  
<2천8백원>

도서출판 대림기획  
100-193 서울 중구 을지로 3가 286  
275-5296 · 6295

### 이의용 에세이집

## 내 놀던 옛동산

'고향은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곳.  
그 그리움이란  
돈을 갖고 싶어하는 것과는 다른 것.  
그렇지 않은 곳은 출생지일 뿐  
고향은 아니다.  
어머니와 고향을 가진 이는 행복하다!  
결론을 독자에게 유보하는  
참신한 수필 47편.  
<2천원>

도서출판 대림기획  
100-193 서울 중구 을지로 3가 286  
275-5296 · 6295

### 이의용 칼럼집

## 고독이라는 교만

직장과가정을 오가며  
고달픈 경쟁과 스트레스에 시달려 낙심하는  
고독한 직장인들에게 주는 산업칼럼.  
'인생은 고독한 것이다.  
그러나 그 고독은 독선에서 나온다.  
자기 중심적인 세계에는  
언제나 고독의 샘물이 고일 수밖에 없다.'  
기업, 사회, 직장인에게 주는  
체험적 메시지 84편.  
<2천5백원>

도서출판 대림기획  
100-193 서울 중구 을지로 3가 286  
275-5296 · 6295

지는, 좁은 의미의 출판문화 창출의 공간으로 서뿐 아니라 우리 사회가 창출해내는 모든 문화적 결실이 힘차게 전시되고 공연되고 토론되는 우리 문화 창출의 중심으로 그 역할을 당당히 해낼 것이다. 국내외 수준의 다양한 문화행사가 한국출판문화산업단지에서 치러질 것이고, 이는 곧 출판작업을 통해 확산되고 재생산될 것이다.

넷째, 우리가 건설하는 출판문화산업단지는 변천하는 세계를 호흡하고 우리의 문화를 세계로 내보내는 국제적 문화공간으로 존재할 것이다. 국제도서전을 비롯한 세계적 규모의 문화행사가 우리의 출판문화산업단지에서 치러질 것이다. 한국출판문화산업단지는 세계의 문화와 예술, 학문과 사상을 호흡하는 열린 창이 될 것이고 우리의 민족문화를 세계화시키는 창구가 될 것이다. 세계의 한국화와 한국의 세계화는 21세기 우리 사회의 지향이고 바로 이같은 작업이 한국출판문화산업단지를 통해 이뤄질 것이다.

다섯째, 우리가 건설하는 한국출판문화산업단지는 출판문화 창출작업에 나서고 있는 모든 일꾼들의 인간다운 삶의 공간이 될 것이다. 출판문화의 사회적 위상의 정당한 회복과 더불어 출판문화 일꾼들의 삶의 질이 적절하게 보장될 것이고, 따라서 출판문화산업단지의 건설은 출판문화 일꾼들의 복지를 도모해 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우리의 출판문화산업단지 건설은 출판계 안팎으로부터 열렬한 호응과 성원뿐 아니라 문화계 등 범사회적인 지지와 격려에서 이제 그 당위성이 명백히 제시되면서 놀라운 추진력

이 축적되고 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명문 출판사들과 개성있는 책으로 새로운 출판문화를 개척해내고 있는 신예 출판사들이 손을 잡았을 뿐 아니라 인쇄·제본 등 출판연관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디자인 등 책의 문화를 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전문집단들이 가세하고 있다. 출판계 안팎에서 우리 출판의 발전을 위한 여러 시도들이 진지하게 있었지만, 이번의 출판문화산업단지 건설을 위한 우리들의 협동작업은 출판문화산업계의 새로운 역사로 기록되고 있는 것이다. 문화계·학계·언론계와 정책입안기관 및 정책입안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이해는 한국출판문화산업단지 건설의 힘이자 우리들의 크나큰 격려가 되고 있다.

#### “책의 문화 신뢰하는 모두와 더불어”

우리의 한국출판문화산업단지는 우리 사회의 문화적 근거이자 자산으로서 우리 모두의 명예와 양식과 긍지로 건설되어야 한다. 민족문화사의 대역사로서 오늘 출범하는 한국출판문화산업단지는 따라서 단시일내에 졸속으로 건설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연대해 창출하는 하나의 거대한 예술품으로 기획되고 연구되며, 설계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세계에 내놓아 자랑할 수 있는 문화창출의 집단공간으로, 그리고 가장 한국적인 내용과 형식을 담아내는 민족문화의 궁지로서 우리는 한국출판문화산업단지를 건설하자. 21세기 우리 민족사회의 위대한 가능성이 민족문화창출의 현대화되고 과학적인 공간으로서 우리의 한국출판문화산업단지를, 책의 문화를 신뢰

하는 우리 사회 모든 성원과 더불어 건설해나가자.

1989년 9월 5일

한국출판문화산업단지건설조합 발기인 일동

#### ■ 발기인 명단 (△표는 실행위원)

▲정진숙(을유문화사, 출판금고이사장, 출협고문) ▲한만년(일조각, 출협고문) ▲민영빈(시사영어사, 출협고문) △권병일(지학사, 출협회장) ▲강영희(갑진출판사) ▲강희일(다산출판사) ▲권만택(대신문화사) △김경희(지식산업사) ▲김광수(대한교과서) ▲김규태(진영지업사) ▲김낙천(고려원) ▲김동금(우리출판사) ▲김문식(일광제본) △김병익(문학과지성사, 출판연구소이사장) ▲김상욱(하서출판사) ▲김수경(얼음사) ▲김신혁(서광사) △김인호(한길사) ▲김영노(열림) ▲김영준(경세원) ▲김원(광장) ▲김인중(남도출판사) △김인호(양지사) △김종수(한울) ▲김중운(삼화정판) ▲김주팔(대훈사) ▲김주홍(현문출판사) ▲김준기(보진재) ▲김준기(시사문화사) ▲김진식(미리내) ▲김춘성(주식연구소) ▲김태경(이론과실천) ▲김현숙(장왕교재연구원) △김현식(동아출판사) ▲김형균(미진사) ▲김형윤(김형윤편집회사) ▲나경안(기전연구원, 출판협동조합이사장) ▲나병식(풀빛) ▲남성진(서강출판사) △박기봉(비봉출판사) ▲박맹호(민음사) ▲박병진(육문사) ▲박용일(이화지업) ▲박은주(김영사) ▲박종만(까치) △박지열(모음사) △박종일(신흥인쇄) ▲박태근(한신문화사) ▲박현숙(깊은샘) ▲박현식

(청목) ▲배승호(대한서적공사) ▲배충환(기린원) △배호선(법문사) ▲백정기(이우출판사) ▲변용의(영민사) ▲서정연(을지출판사) ▲송순현(정신세계사) ▲신동재(교보문고) ▲신용후(현음사) ▲신형식(녹두) ▲안광룡(진명출판사) ▲안길준(선경) ▲안상수(안그래픽스) ▲양철우(교학사) ▲유광선(집현전) ▲유이근(세일사) ▲유익형(법문사) ▲윤경호(청원지업상사) △윤석금(웅진출판사) ▲윤일숙(햇빛출판사) △윤청광(동국출판사) △윤형두(범우사, 한국출판학회회장) ▲이건복(동녘) ▲이경훈(보성사) △이기웅(열화당, 추진위원장) ▲이동명(언어문화사) ▲이세용(도산문화사) ▲이수용(수문출판사) ▲이승구(현대문학사) ▲이약실(경일제책) ▲이영기(신태양사) ▲이영혜(디자인하우스) ▲이영호(수학사) ▲이의영(우일문화사) ▲이종복(심설당) ▲이종익(신구문화사) ▲이종천(오늘) ▲이종호(서당) ▲이춘화(푸른꿈) ▲임승남(돌베개) △임인수(한림출판사) ▲장석주(청하) ▲장용환(삼흥지업) ▲전덕수(대흥제본) ▲전병석(문예출판사) ▲전장준(자유문학사) ▲정규영(명지문화사) ▲정기석(다나) ▲정병규(정디자인실) ▲정석준(신아사) △정인철(한국프뢰벨) ▲정해림(창작과비평) ▲조상호(나남출판사) ▲조치흠(백양사) ▲주정희(자유아카데미) ▲차민도(대원사) △최선호(청한문화사) ▲최원식(한국교육출판) ▲최필승(한마당) ▲한창기(뿌리깊은나무) △허창성(평화출판사, 출협부회장) ▲홍사희(영신사)

## 좋은 편집인을 만나십시오

편집자, 기자, 레이아웃터,  
교정자, 카피라이터

※ 수강예약마감 : 9월 13일  
개강 및 오리엔테이션 : 9월 18일

출판·잡지·사보·신문사 취업대비

엘리트 편집인 양성 교육기관  
한국편집디자인센터  
119 812-1715-6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본 한국편집디자인센터는 국내 출판·편집 산업과 엘리트 편집인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전문교육 기관으로서 전문편집인이 갖추어야 할 이론·실무 실습 위주의 교육과 출판·편집업계를 대상으로 취업추진, 출판분야 정보제공에 힘쓰고 있습니다.

금번 본 센터에서는 정규반 수료생을 추천하고자 귀사에 일차 선별을 의뢰하오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현재 취업 구인 의뢰 급증!

※ 전공이나 경력을 고려하시면 그에 따른 소양인을 추천하겠습니다.

뉴미디어 시대를 이끌  
엘리트 편집인 양성 목표!!

본 센터의 수료생을 채용해주신  
출판사·잡지사 인사책임자에게  
감사 드립니다.

노량진 전철역 맞은편

※ 취업인력 정보실 ☎ 814-3387